



염인수의 <깊은 강은 흐른다>

김화선(배재대)

1. 소설가 염인수의 문학 연보

- 일본 유학을 다녀온 염인수(廉仁洙, 1912~2006, 필명 廉仁默, 金炳洙, 춘하 등)는 소설가 안희남의 추천으로 문단활동을 시작하였다.
- 단편소설 「시험」(現代, 1947년), 「고구마」(民聲, 1947년), 「기다리는 마음」(藝術朝鮮, 1947년), 「작은 旋風」(신천지, 1949년)과 수필 「文學雜感」(新聲, 1948년) 등을 발표하였다.
- 해방공간 대전에서 문학가동맹 대전지부 활동을 한 이력과 소설가 김만선을 숨겨준 일이 문제가 되어 도피 생활을 시작하였다.
- 산내 학살 사건의 생존자로 당시 상황을 글로 증언한 바 있다.
- 문단에서 사라진 뒤로 삼십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고 해금이 된 후에야 그동안 써두었던 소설집 <장위고개>(한일, 1983. 도서출판 심지 1988)와 창작집 <懷古>(도서출판 심지, 1987), <깊은 강은 흐른다>(도서출판 심지, 1989)를 출간하였다.
- 이후 <남산일기>(미리내, 1991)부터 <정>(미리내, 2003)에 이르기까지 6권의 수필집을 발표하였다.

2. 장편기록소설 <깊은 강은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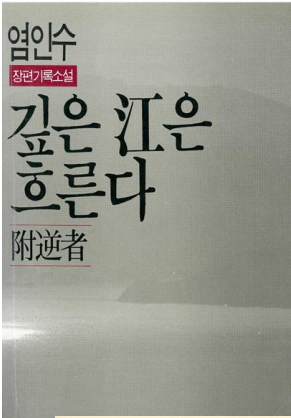
1) 소설가의 정체성을 기록한 생존투쟁

- 서지사항에서 장편기록소설이라 밝히고 있는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가 전하는 회고담의 형식으로 6.25가 발발하여 폐허가 된 대전에서 시작해 다시 "추억의 땅" 대전을 찾은 이야기와 <장위고개>와 <회고>를 출판한 소회 등을 덧붙이고 있다.
- '이데올로기 문학'으로 대전문단에 발을 디딘 염인수가 작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다.
-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비로소 하고자 한다. 그 원고는 많은 연륜과 역사를 갖고 있었다. 어느 것은 삼십여년 어느 것은 이십년 십년을 그러나 그것은 발표를 위하여 쓰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때의 그 역사를 기록해 두자는 간절한 소망에 불과했다. ... 생략... 는 여기서 그새 긴긴 세월 숨겨 왔던 그 비밀의 장막을 한겹 두겹 헤쳐 나가면서 기록하고자 한다. -창작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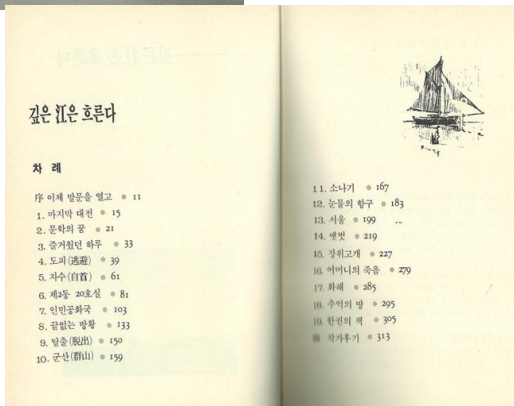
2) 기억의 서사와 허구/비허구의 경계 허물기

로 컬	대전	이리 (현 익산)	군산	서울
정 체 성	지식인·작 가	부역자·노동자 작가	부역자·노동자 작가	노동자·작가 부역자

- <깊은 강은 흐른다>는 표면상으로는 '지식인·작가→노동자→작가'와 같이 작가/1인칭 화자가 역경의 과정을 거친 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염인수는 단 한 순간도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염인수가 '지식인, 작가'에서 '노동자'를 거쳐 다시 작가로 돌아가는 정체성의 변화 과정 이면에는 억누를 수 없었던 "문학이라는 열병"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이 노동을 하는 일상이 지속되는 현실에서도 글을 쓰도록 추동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 염인수는 체험을 창작의 기본으로 여기고 자신의 문학적 연대기를 허구와 비허구의 경계를 넘나드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 오늘을 기다렸던가
죽음을 앞에 두고 묻서러릴 때
경치없이 떠나버린 향구의 새벽
전처들 등에 메고 산모퉁이 돌 때
기다리던 그때는 오늘이던가
세월은 오고가고 환권의 띠
세월의 강물은 흘러 가네
수많은 목련소리 속삭여주는
나의 사랑 장위고개 생각날 때면
내 그림자 나란히 고개에 올라
추억의 뿔뿔길 더듬어보리



3. 염인수의 문학과 대전이라는 로컬

1) 안회남과의 만남

- 그때에 충남 전의에서 우연히 회남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민성》이라는 잡지에 추천작 <감자>를 처음으로 문단에 선보이게 되었다. 회남은 그때 전의 산동네 초가에 살고 있었다. 내가 그 이름 높은 문인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초라한 초가를 바라보고는 다소 실망했던 일이 새삼 머리에 떠오른다. ... 종략... 큰방과 좁은 마루를 건너 또 하나의 방이 있었는데 그곳이 회남의 서재인 듯했다. ... 종략... "대전에서 글을 쓰는 분이 있다니 반갑소." "저는 선생님의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22-23쪽)
- 염인수는 1946년 즈음 일본에서 징용을 살고 온 안회남을 만나 자신의 원고를 건네고 읽어보기를 청한다.
- 대전 지역에서 활동한 박용래, 민병성, 전형, 추식, 임완빈, 황린과 서울 문단에서 주로 활동했던 안회남, 김만선, 임화 등의 문인에 대한 기억은 해방공간에서 한국전쟁을 거치는 시기의 대전 지역의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2) 산내 골령골-대전형무소 학살 현장의 생존자

■ 학살현장 기적의 생존자故 염인수 작가

“간수, 수감자 인원 착오로 구사일생”

“살아 남은 것은 기적입니다. 대전 교도소 간수가 감방 안에 있던 수감자 숫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죽음을 면했습니다.”

6·25 전쟁 초기 최대 민간인 학살 사건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단 1명 있었다. 대전에서 1946년부터 1950년까지 문학운동을 벌였던 고 염인수 <사진> 작가가 그 주인공이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염 작가는 경찰에 붙잡혔다. 전쟁이 일어나자 사회주의

는 집이 됐다. 문학을 하는 것도 제대로 직업을 갖는 것도 불가능했다. 형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항상 숨어 살다시피 했다.”



일본 동경농대를 나온 그는 대전의 농사시험장에서 근무하며 문학운동에 투신했다. 연기 전의에 살고 있던 안회남을 알게 돼 문단에 데뷔했고, 대전의 많은 문학청년들이 그를 따랐다. 대전에 살고 있던 허유상, 박용래, 민병성, 추식, 임완빈, 황린, 전형, 박희선, 김준성, 호현찬 등과 교류했다.

그러나 그가 교류했던 중앙의 김만선이 문학가동맹 사건으로 수배되면서 사회주의 성향의 인물로 몰렸다. 평생을 고동스럽게 이념의 골레에 허덕였던 염 작가는 인생 말년의 삶에 여유가 생기자 다시 창작의 길로 들어섰다. 1912년 생인 그는 1983년 72세의 나이로 첫 작품 ‘장귀고개’를 펴냈고 그 뒤로도 ‘회고’ ‘남산일기’ ‘깊은 강은 흐른다’ 등의 산문집과 소설집을 펴냈다. 2006년 작고했다. 김재근 기자

※ 대전일본는 생전에 그를 인터뷰를 했지만 사업가와 고위직 공무원인 자녀를 걱정하며 기사화를 저어했다. 그의 회망에 따라 사후에 이 글을 실는다.

대전서 문학운동 주도 사회주의자 누명 투옥

계열의 문학가동맹에 관련했다는 이유로 사전 검거한 것이다. “방안에 있던 동료들이 모두 끌려나갔다. 10명씩 묶어서 데리고 갔다. 내가 있던 방의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말이 마비돼 일어날 수 없었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간수가 숫자를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았다.”

염 작가의 방에 있던 수감자들은 대전 전투가 시작된 이후인 3차 학살(7월 16-17일) 때 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북한 점령 치하에서 문학가동맹 대전 지부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이런 전력 때문에 그는 거의 평생을 은둔과 도피, 노동일로 일관했다.

“해방 직후 젊은 시절 문학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평생을 돌림이처럼 억누르

3) 廉그룹과 작가'들'의 네트워크

- “그동안 대전·충청지역의 근대문학은 1946년 정훈, 박용래, 박희선, 이재복, 원영한, 하유상, 송석홍 등에 의해 만들어진 「동백」만을 그 뿌리로 여겨왔”고 “우리 문학사가 문학가동맹그룹을 애써 부인하고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조선청년문학가협회만을 인정해 온 것과 동일하게 이 지역에서도 사회주의 문학운동을 구태여 배제해” 왔다. - 염인수를 인터뷰한 김재근의 지적
- <깊은 강은 흐른다>는 대전과 충남에서 활동하던 가난한 문학도들이 염인수의 집에 모여들었던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며 “대전에서의 문학계의 지명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대전의 문학계에서 간판격인 얼굴”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 “대전의 문인들 사이에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고 있었던 염인수는 소설에서 박용래와 민병성, 전형, 추식, 임완빈, 황린 등을 언급하며 해방공간 대전문단의 풍경을 전달하고 있다.
- 염인수를 하나의 꼭짓점으로 하여 박용래와 민병성, 추식과 임완빈, 전형과 황린, 이병권 등이 서로 연결되어 대전의 예술가 그룹을 구성하고 있다면, 염인수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삼각형의 클러스터는 안회남, 김만선, 임화와 김동리 등의 문인들 사이의 연결선으로 확대될 수 있다.
- 엄밀히 말해 염인수는 휴머니즘에 입각한 중도주의적 성향을 지닌 작가라 할 수 있다. “진짜 빨갱이는 아니”었음에도 대전의 문학가동맹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쌍한 한 마리의 속죄양이 되”어 긴 시간 동안 자신의 이름을 숨긴 채 살 수밖에 없었다.

4. 마무리

- 염인수는 해방공간 대전의 농사시험장을 배경으로 현실비판적 목소리가 담긴 소설을 발표한 작가라는 점, 공백기로 남아있는 대전 지역 소설문학의 시작을 알렸다는 점, 보편적 미학의 잣대를 넘어서는 로컬리티의 글쓰기를 실천하며 지역문학의 미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대전문학장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독자가 마주하는 염인수의 문학은 플롯을 해체하고 사실을 나열하는 등 소설이나 수필이라는 기존의 장르적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곤란한 지점이 있다. 그러나 그의 문학은 미적 형식이나 서사 형식을 넘어서 부재하는 원인으로서의 역사를 응시하도록 추동한다.